흥부, 놀부는 가공 아닌 실존인물

학술특집

고소설 '흥부전' 발상지에 대한 고증조사〈1〉

박첨지 설화 '흥부전' 원형추정

본고 민속학 연구소, 고증 조사

본고는 본교 민속학 연구소에서 전북 남원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흥부전)발상지 고증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채록한 것이다.

2회로 나뉘어 이번주에는 문헌적 고증과 동면(同面) 성산리(城山理)의 고증을 살펴본다. 〈편집자 註〉

본교 민속학 연구소(소장:국문과 김태곤 교수)에서는 전북 남원군의 의뢰를 받아 '(흥부전)발상지 고증 조사'를 1992년 7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실시하였다. 필자는 문학쪽 고증을 맡고, 주강현 연구원(역사민속학회 연구실장)은 민속쪽 고증을 맡았다. 고증 조사는 문헌적 고증을 먼저 한 뒤에 현지 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Ⅰ 문헌적 고증

(1) 주인공의 이름:주인공들의 이름이 놀보·흥보가 놀부·흥부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주인공들의 이름이 원래 '놀보·흥보'가 맞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사람 뒤에 붙이는 접미사는 먹보, 떡보, 잠보 등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2) 주인공의 성:신재효본 "박타령"(1870~1873년 무렵)에서는 '박씨'로 되어 있고, 판소리창본들은 모두 그것을 따르고 있다. 한편 1913년에 나온 신구서림본 '燕의 脚'에는 '연씨'로 되어 있고, 다른 구활자들도 그것을 따르고 있다. 그밖에 필사본에서는 장씨, 활씨로 되어 있는 이본도 있다. 결국 (흥부전)에서 주인공의 성은 '박씨'와 '연씨'가 대표적인데, 그 중 '박씨'가 시간적 선후 관계와 작가의 제작 태도에서 볼 때 더 신빙성이 있다.

(3) 놀부·흥부의 고향 마을:가장 오래된 이른인 경판 25장본(1860년경 간행 추정)에서는 '경상 전라 양도지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재효본에서는 '충청 전라 경상 월품'으로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는 흥부가 형 놀부에게 쫓겨난 뒤 유랑한 지명들이 나온다. 이 지명들을 분석하면 놀부·흥부의 고향은 '전라북도의 지리산과 가까운 곳'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흥부가 유랑 끝에 전북 남원군 '산안(산내면)'을 끝으로 '고향 근처 복덕촌'을 찾아드는 것으로 볼 때 흥부의 고향은 남원이며, 남원에서 산내면과 가까운 이웃 면 쯤되는 곳으로 추정된다.

또, 판소리에서는 이곳이 "경상도는 함양이오 전라도는 운봉인데 운봉 함양 두어씹에 박기(朴꼭) 형제 있었으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좁혀오면 결국 놀부·흥부의 고향은 현행 전라북도 남원군 동면(東面)이될 확률이 높다. 왜냐 하면 남원군 안에서 조선시대 때 운봉 땅이었으며, 경상도와 접경하고 있고 또 산내면과 접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면은 동면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동편제 명창 장판개(1885~1937)가 판 놀부제비노정기에서는 놀부제비가 "남원 광한루를 구경하고 운봉 연재를 얼른 넘어 놀보집을 당도했다"고 하고 있다. 이는 곧 위에서 말한 동면의 위치에 해당한다. 이곳을 더 자세히 좁혀서 지적해 보자면 남원군 동면 성산리(城山里)가 놀부·흥부 고향의 제1후보지가 된다. 왜냐하면, 이 마을은 팔량치(팔랭재)라는 고개를 경계로 바로 경상북도 함양군과 접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야말로 "경상 전라 양도지경"에 자리잡고 있고 때문이다.

(4) 흥부가 정착하여 발복한 마을:서편제 명창 김창환(金昌煥)(1854~1927)이 짜서 지금 모든 판소리에서 부르고 있는 '흥부제비노정기'에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 읍듬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봐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곳이 신재효본에는 '복덕촌(福德村)'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으로 나와 있다. 만약에 이 지명이 실제로 찾아진다면 그것은 흥부의 정착 마을을 찾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복덕촌'의 위치는 어디인가? 첫째, 그곳은 조선시대 당시 놀부집과 같은 '운봉원'에 속했던 곳이다. 둘째, 놀부가 흥부가 부지런 것을 소문으로 듣고 늦게 찾아서는 것을 보면 그곳은 놀부의 행동반경 밖에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흥부가 산 곳은 인월리 등의 동면 쪽은 아닐 것이다. 셋째, 그 거리는 놀부가 흥부집에 왔다가 회초장을 지고 그 날로 돌아가는 정도의 거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넷째 신재효본에서 흥부는 '산안(전북 남원군 산내면)'을 끝으로 "고향 근처 도로 차져 한 곳을 당도하니 촌명은 복덕"이었다. 이렇게 보면 흥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내면과 접한 북쪽 면이 흥보의 고향인 동면이었다면 그 동면과 접한 그 위의 북쪽 면에 '복덕촌'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곳은 지금의 남원군 아영면(阿英面)이 된다. 다섯째, 흥부집에서 병영으로 매품 팔러 가는 전주감영까지의 거리가 밝혀진 이론을 살펴 보면 그 중 1매리의 1백90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남원군 아영면에서 전주 중심까지의 거리가 그와 대강 일치한다.

이와같이 문헌적 고찰의 결과 놀부·흥부의 고향은 전북 남원군 동면 쪽으로 추정되며, 흥부가 정착한 곳은 전북 남원군 아영면 쪽으로 추정되는 복덕촌으로 밝혀졌다.

Ⅱ 동면(東面) 성산리(城山里)고증

(1) 장도근 창본의 고증:동편제 어느때 경상도 함양 땅에 민란이 일어나서 폭도들이 팔령재를 넘어와서 이 마을에까지 쳐들어 왔다. 그 폭도들은 박첨지를 비롯한 그의 식구들을 모두 죽이고 집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는 박첨지 식구들의 시체를 내버려 두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나그네가 이 마을에 들렀다. 그는 박첨지네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첨지네의 장사를 지내 주었다. 그 나그네는 앞으로도 박첨지 묘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갔다.

그런데 박첨지가 죽은 뒤 마을에는 재앙이 떠날 날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점을 쳐 보았더니 박첨지의 넋이 마을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삼월 삼짇날 박첨지네 묘에 제사를 지내주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이 박첨지네 묘를 모두 찾아 다섯 식구의 묘제를 지내 주었더니 과연 그 뒤로는 마을이 평온해졌다. 그래서 그 후로도 이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삼월 삼짇날이면 박첨지 묘제를 지내오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박첨지는 놀부와 같은 악질 지주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함양쪽에서 민란이 일어났을 때 민중의 타도 목표의 하나가 박첨지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조선 후기 민란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났던 현상으로 다음 글에서 증명된다.

조선후기 각처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민란의 양상은 대체로 공통된 성격을 지녔다. 수천명의 민중이 지방의 관청을 습격하여 문부(文簿)를 불사르고 지방관을 몰아내고 주로 간악한 이서(吏胥)와 부민(富民)을 살상하고 혹은 그들의 가옥을 파괴 또는 불사르는 등 극열한 것이었다. (한우근, '한국통사')

그런데 이 마을을 찾아와서 박첨지의 장사를 지내 준 그 나그네는 박첨지의 형제나 친척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박첨지의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친척들에게도 후덕하게 대했을리 만무하니, 그 나그네는 박첨지의 친형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이 이야기는 '흥부전'의 원형적 이야기임이 드러난다. 즉 박첨지가 '놀부'의 모델이라면, 이 나그네는 '흥부'의 모델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박첨지는 실제 역사 속에서 민란으로 인해 망했다. 그러나 '흥부전'은 이 사건을 놀부가 박을 타서 망한 것으로 표현해 놓았다.

이와같이 박첨지 설화는 '흥부전'의 원형 설화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결국 이 박첨지 설화는 이 동면 성산리가 놀부의 집이 있던 마을 곧, 놀부·흥부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3)권삼득과 '흥보가':이곳의 이야기가 '흥부전'의 모델이 된 것은 '흥보가'가 짱기였다는 관소리 초기의 명창 권삼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삼득은 전국 악산(또는 전북 완주) 출생이다. 하나 그는 남원군 주천면에 와서 소리 공부를 하여 명창이 되었다. 따라서 그가 관소리의 소재로 삼은 것은 자연 자기가 소리 공부하며 살던 남원에서 보거나 들은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주천면과 가까운 동면과 아영면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흥부전'의 근원설화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호에 계속〉

김 창 진〈본교강사·국문학〉

歲時錄 신한국 개혁속의 아픈 상처

과거가 잊혀진 역사가 살아숨쉬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 역사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지만 반대로 과거에 대해 닫혀있는 역사는 죽은 역사일 수 밖에 없으리라.

80년 오월의 빛고을로부터 지난 91년 강경대 열사이후까지의 수많은 사건과 죽음들은 우리 현대사에 커다란 줄기를 이루어 왔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빛이고 어둠에 태어나 살면서 안고 대녀야 할 점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민간인 대통령이 들어서 개혁의 칼날을 번뜩이고 있다고 해도 쉽게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이기도 하다.

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잠혀가거나 고문당하고 죽음당하고 또는 스스로 몸을 불사르기도 했듯이 그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부르지져온, 바라던 세상이 '그날'은 과연 오고 있을까.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의 물결이 일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지만 우리는 지난 일들에 대해 너무 쉽게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세상이 많이 변해서 혹은 질땅에 빠져서이든 너무 쉽게 잊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단순히 추모식만으로 강경대 열사 2주기 추모식이 있었고 강경대의 누님과 추모사업회장이 추모사업회의 인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다시금 불감증에 걸려있던 우리를 되뇌이게 한다. 또한 최근 광주항쟁에 대한 문제해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이 선행되지 않는 해결책은 무의미 하다는 지적을 보며, 오월의 광주가 그 정신은 묻힌채 닫지 그 역사적 사실만이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된다.

요즈음 신한국 창조를 위해 진전만이 필요한 때에 과거 이야기는 무감각하게 과거로만 묻어두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올바른 과거가 없다면 올바른 현재도 미래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과거사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평가를 더욱 요구하는지도 모르겠다. 젊은 상처가 나아야만 곁을 수도 설수도 있듯이, 진실의 복원과 냉철한 반성만이 앞길을 밝히는 지표가 됨은 말할 나위 없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광주가 그렇고 아직 의문에 쌓인 많은 사건도 마찬가지다. 더더욱 아직 두눈 부릅뜬 91년의 젊은 열사들이 있다. 그것은 80, 91년만의 일이 아닌 끊임없이 살아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더욱 무관심할 수 없다.

오월이다.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다시금 강조하자면, 진정한 개혁은 미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송보영 기획부장〉

지하철 역사 대기오염 청신호

논문초록

서울 지하철역의 대기오염

역내대기오염 외부의 영향 많아

고효율 공기 정화기 설치 필요

본고는 지난 7일·8일 양일간 수원캠퍼스 지하철 학대학에서 열렸던 '대한 환경공학회의 춘계학술연구발표회에서 본교 김동술(환경학과 대기오염연구실)회원 외 4명이 지하철의 가스상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註〉

Ⅰ. 서론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인구과밀, 지가상승, 상권의 확대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굴착기술의 개발, 지하건설 기술의 향상, 지가의 상승등으로 경제적 가능성이 나타나 지하공간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지하운송수단은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과 대기질 악화의 해결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974년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한 이래 1984년 2호선, 1985년 3,4호선을 개통하여 현재는 하루 평균 3백만명 정도의 인원을 수송하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지하철의 연결구간은 점점 연장되고 있으며 지하철 5~7호선을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어서 완공 후에는 하루 5백명 이상이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지하공간에서의 생활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지하공간 내에서 쾌적한 환경이 국민 보건상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지하철 내의 공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철내의 공기 오염물질중 가스상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Ⅱ. 측정개요

본 연구조사는 서울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SO_2, NO_x, CO를 91년 10월~92년 7월 사이에 지하역과 외기에 대해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diaphragm pump를 이용하여 승강장(승강장의 중심), 대합실(이용객이 많은 대합실), 외부공기(지하철 환기구 근처)를 지상 1.5m 높이에서 공기포집용 Bag(Teflon 재질 Bag, 40L)으로 포집하여 실험실에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O_2는 자외선형 광 법 (UV - fluorescence method), NO_x는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ce method), CO는 비분산적외선법(NDIR)을 이용하였다.

또한 시간별 측정은 대기오염 자동연속 측정기(KIMOTO사, MCSAM-2, JAPAN)를 매표소에 설치하고, 채취관을 통하여 승강장, 대합실 및 외부 등 3개 지점의 공기를 인입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가스상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는 환경처의 지하환경권고치 이하의 농도를 나타냈고, 외부공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지하철 역사에서의 환기방식인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열차 및 사람,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내부 발생열을 제거하기 위한 환기동력을 현재의 방향을 위한 동력으로 대체하고, 환기량을 최소화하거나 환기계통 내에 고효율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면, 현재보다는 쾌적한 지하 역사의 공기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당신의 비전을 실현해드리는
럭키금성의 新制度

CULTURE UNIT

"계열사마다 업무스타일이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데에 정말 놀랐습니다"

인턴사원 조성호, 이창환

한달동안의 인턴사원 교육과정을 통해, 저는 럭키금성에 관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간적이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 신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 어느 기업보다도 활발하게 추진되는 연구개발 등—
럭키금성의 실체는 제가 알고 있었던 이미지와는 너무도 판이했기에 저는 저의 좁은 소견을 거듭 질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각 계열사마다 업무스타일이나 분위기가 너무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자회사는 전자회사대로, 증권회사는 증권회사대로, 종합상사는 종합상사대로, 독창적인 경영스타일과 문화가 뚜렷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보니 그룹내 사업들을 통일한 사업문화를 가진 사업체별로 구분해서, 그 사업을 가장 잘 아는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른바 C.U(Culture Unit) 즉 사업문화단위에 의한 자율경영이죠.
하긴, 생체산에도 성격이나 능력이 전혀 다른게 다반사인데, 같은 그룹이라고 어떻게 똑같은 원칙과 규율을 적용할 수 있겠어요? C.U를 이해하고 난 후, 럭키금성의 자율경영이 확신한 제도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럭키금성은 독자적인 사업문화단위 (C.U)를 통해 자율경영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